경남도민신문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

김영찬기자 | 승인 2023.06.01 17:16 | 7면

비상상황 대한 위기대응능력 제고·안전의식 고취

▲ /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(지사장 이경)는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한 서암저수지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, 지진 저수지 붕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을 실시했다.

지사에 따르면 이 훈련은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했다.

이번 훈련은 의령지사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대응반과 의령소방서, 긴급동원업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저수지 제당 외측 비탈면에 누수가 발생해, 슬라이딩 및 침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.

또한 실제와 같은 상황 연출을 통한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비상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.

이 경 지사장은 "최근 이상기후로 늘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 김영찬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김영찬기자